알뛰세르의 레닌과 레닌의 철학

I. 레닌과 알뛰세

「헤겔 이전의 레닌」(1969. 4)에서 알뛰세르는 자신이 1년 전에 했던 강의 「레닌과 철학」 에서의 발견을 7 가지 명제로 정식화하겠다고 말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레닌과 철학」은 1968년 2월에 작성된 글이다. 한글판은 모두 이 문헌을 1982년 판본에서 옮겨오고 있다.『레닌과 철학』(백의, 1991)의 이진수의 번역은 1982년 Maspero 판[Lénine et la philosophie suivi de Marx et Lénine durant Hegel]을 텍스트로 삼고 있다. 『레닌과 러시아 혁명』(그린비, 2008)에 재번역된 진태원의 번역은 1982년 Decouverte 판[Lénine et la Philosophie]을 텍스트로 삼고 있다. 이 두 글이 알뛰세르가 레닌을 전유하는 대표적인 두 문헌인데, 보는 바처럼 그는 철학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레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알뛰세르의 레닌은 「무엇을 할 것인가」나 「4월 테제」가 아니라 『유물론과 경험비판론』(1908) 및 『철학 노트』(1914~5)이다. 알뛰세르는 1년여의 시간적 거리를 두고 「레닌과 철학」에서는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을 「헤겔 이전의 레닌」에서는 『철학 노트』를 분석한다.

II. 레닌과 철학

우선 알뛰세르 자신이 정리한 「레닌과 철학」의 7 가지 명제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1. 철학은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 대상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철학에게는 대상이 없다.

이것은 레닌이 '철학의 폐지와 그것의 과학(논리학)으로의 수렴'을 암시했던 엥겔스와는 달리 철학의 고유성을 사고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취해진 해석이다. 알뛰세르는 철학이 과학의 발전을 근거로 하여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뒤늦게 찾아온다고 본다. 즉 철학은 과학의 인식론적 단절을 뒤늦게 종합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의 수학(예로 탈레스)에 근거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그리스 고대 철학이, 중세의 물리학(예로 갈릴레이)을 근거로 하여 데카르트 이래의 근대 철학이 발생했다고 본다. 이것이 맑스-레닌주의 혁명 이전의 두 개의 이론적 대륙을 구성한다. 맑스는 너무 일찍 찾아온 「포이에르바하 테제」와 『독일 이데올로기』 이후 약 30년간 『자본론』이라는 과학에 몰두했고 엥겔스가 『안티 뒤링』과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을 통해 철학의 과학으로의 수렴을 성급하게 주장하게 된다. 알뛰세르가 보기에 엥겔스의 개입은 너무 이른 것이었으며 철학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알뛰세르는 레닌이 철학의 과학으로의 환원이 아니라 과학으로부터 철학의 구분과 그 고유성에 대한 탐구로 나아갔다고 읽는다. 그러나 그것은 라브리올라[1843. 7. 2 양시칠리아 왕국 카시노~1904. 2. 12 로마. 이탈리아의 철학자. 이탈리아에서 마르크스 사회주의 연구의 체계를 세웠다.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자세히 소개했으며 다양한 정치적 신조를 가지고 있던 동시대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헤겔주의 철학자 베르트란도 스파벤타의 제자로 1874년 로마대학 철학교수가 되었다. 독자적·비판적 정신, 타고난 언어구사력으로 뛰어난 학자이자 교사로 인정받았다. 처음에는 정치적 권리를 옹호했으나 차츰 이탈리아 정치의 타락에 혼란을 느꼈고 마침내 1885년 급진적 사회주의 철학을 받아들였다. 1889년 역사철학강좌를 개설하여 이탈리아 최초로 마르크스주의를 강의하기 시작했다. 1890년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편지왕래를 시작했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원전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으며 비판적·분석적 관점에서 역사적 유물론에 접근했다. 얼마 뒤에는 〈공산당 선언〉을 이탈리아어로 번역·출판했다. 추상적 형이상학은 실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노동자정당을 창설하기 위해 노력했다. 저서로는 〈공산당 선언을 기념하여 In memoria del Manifesto dei Communisti〉(1895)· 〈유물론적 역사관 La concezione

materialistica della storia〉(1896)·〈사회주의와 철학에 관한 담화 Discorrendo di socialismo e di filosofia〉(1897) 등이 있다.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i=129786]나 그람시가 생각하는 **새로운 철학**, 즉 실천철학을 정의하려는 노력이 아니다. 알뛰세르에 따르면 그것은 **철학의 새로운 실천**이라는 철학 개념의 발견이었다. 이 발견은 세 번째의 인식론적 단절로서의 역사과학의 발전에 근거한다. 그러나 레닌의 발견은 세 번째의 인식론적 단절의 완숙한 종합은 아니다. 그것은 그 작업의 첫 단계로서 미숙성=야생성sauvage을 갖는다. 맑스주의 철학은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 발전했다. (1)「포이에르바하 테제」(이것은 사태를 앞질러 갔다, 새로운 역사과학을 위해 철학과 단절하기), (2)『안티-뒤링』(조급하게 철학 속에서 철학을 폐지하기), (3)『유물론과 경험비판론』(철학의 새로운 실천의 초기적 야생적 미숙한 정식화). 이제 알뛰세르는 자신에게서 이 종합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일까?

2.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론 형식 내에서 수행된 정치적 개입의 실천이다.

철학이 실천이라는 생각은 유지된다. 이론 형식을 개념을 수단으로 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여도 좋다면 알뛰세르의 철학은 개념을 통한 정치적 개입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개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우선 철학이 개입하는 곳은 알뛰세르의 사유맥락을 고려할 때 필연적으로 계급투쟁이다. 계급투쟁에의 개입은 그 자체가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개입의 실천이란 계급투쟁이라는 말로 바꿔써도 무방할 것이다. 즉 알뛰세르는 이 명제에서 철학은 이론 형식 내에서의 계급투쟁, 이론에서의 계급투쟁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알뛰세르는 철학을 **계급투쟁의 특수한 형식**으로 이해한다. 이것이 철학의 종말이라는 엥겔스의 테제에 맞서 알뛰세르가 철학을 구출하는 방식이다. 바디우는 "나는 철학이 오늘날 가능하다고 가정할 뿐만 아니라 이 가능성은 종말에 의해 관통된 형태를 갖지 않는다고 가정한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들뢰즈 역시 철학의 종말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들은 계급투쟁을 이야기하지 않고도 철학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철학을 행한다. 이들에 의해 철학은 계급투쟁보다도 더 넓은 평면에 놓여지며 **삶의 한 형식**으로 이해된다. 이에 비하면 알뛰세르는 삶이 곧 계급투쟁이라는 등식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

3. 철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수 영역에 개입한다. 계급투쟁의 결과라는 정치영역과 과학적 실천의 결과라는 이론영역이 그것이다.
알뛰세르는 철학은 정치도 과학도 아닌 것, 그것들의 제3항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철학은 과학을 조건으로 해서 태어난다. 철학은 항상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과학을 포함하는 세계 속에서만 존재한다.(294) 그렇다 해도 때로는 철학이 과학의 새로운 범주들을 탄생시키는 이론적 실험실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치에 대해서 철학은 어떠할까? 역시 철학은 정치를 조건으로 해서 태어나는 것 같다. 레닌은 "정치를 위한 시기에 태어날 기회를 얻었지만 철학에 관해서는 너무 일찍 태어나는 불운을 겪었던 사람"이라고 알뛰세르는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인식론적 단절의 시대가 맑스(역사과학)-레닌(정치)-알뛰세르(철학)의 순으로 발전하고 종합되어 간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계열 속에서 알뛰세르는 레닌을 자신이 수행하는 철학의 새로운 실천(이론적 실천, 이론에서의 계급투쟁)의 선구자, 그 예비적 형상으로 설정한다. 철학이 정치와 과학에 개입하는 방식은 사후적인 종합이며 지체라는 시간형식 속에서이다. 알뛰세르가 맑스와 레닌의 저작들에 대한 해석만으로 계급투쟁적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철학의 이 때늦은 개입이 취하는

본래적 방식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의 서술 이후에 알뛰세르는 4와 5에서 정치 및 과학과 철학의 관계를 밝힌다. 철학은 정치와 과학의 결합의 산물이며 그것들이 결합되는 영역은 이론이다. 철학은 두 실천이 결합되는 곳에서 생산된다. 그런데 이 결합에 의한 철학의 생산은 곧 철학이 두 가지 실천영역에 개입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 4. 본질상 철학 자체는 계급투쟁의 결과와 과학적 실천의 결과, 그 둘의 결합에 의해 이론영역에서 생산된다.
> 5. 따라서 철학은 이론의 형식으로 두 영역, 즉 정치적 실천의 영역과 과학적 실천의 영역에 정치적으로 개입한다. 이 두개의 개입영역은 철학 자체가 이 두 개의 실천으로부터 생긴 결과의 결합에 의해 생산되는 한 철학의 영역이다.

철학의 정치적 개입의 실천이 나타나는 장, 즉 철학의 이론적 계급투쟁이 전개되는 공간은 철학사의 극장 위에서이다. 그 극장에서는 항상 관념론과 유물론 사이의 투쟁이 전개된다. 관념론은 부르주아의 입장을, 유물론은 프롤레타리아의 입장을 표현한다. 당파성이 철학들을 횡단한다. 그래서 알뛰세르는 이렇게 말한다.

> 6. 모든 철학은 철학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관념론과 유물론 사이의 논쟁이라는 거대한 논쟁 속에서 하나의 계급적 입장, 하나의 당파성을 표현한다.

그러나 철학 속에서 두 가지 당파성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비대칭적이다. 관념론은 당파성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당파적이다. 이 때 부인[dénégation]은 부정한다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프로이트의 Verneinung을 의미하는 바, 이것은 피분석자가 어떤 관념을 부정할 때에 사실은 그것을 부정한다는 사실이 그 관념에 대한 긍정을 뜻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관념론은 자신의 철학이 당파적이지 않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당파적임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철학적 순수성에 대한 옹호가 실제로는 철학을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의 당파성을 재현하는 철학으로서의 레닌의 새로운 철학적 실천은 철학이 당파적인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는 점에서 이와는 다른 철학의 새로운 실천을 보여준다. 그래서 알뛰세르는 자신의 마지막 명제를 이렇게 정리한다.

> 7. 철학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혁명은 자기자신은 언제나 계급 입장을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철학이 계급입장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철학에 관한 관념론적 개념('세계의 해석'으로서의 철학)의 거부, 그리고 철학에 있어서 유물론적인 프롤레타리아 계급 입장의 채택, 이론에 있어서 계급분화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철학의 유물론적이고 혁명적인 새로운 실천의 개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III. 헤겔 이전의 레닌

「헤겔 이전의 레닌」에서 알뛰세르는 레닌이 두 번 헤겔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 바 있고 그것들이 서로 외관상으로는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한 번은 『'인민이 벗'이란 누구인가』(1894)에서인데 여기서 레닌은 맑스의 변증법을 헤겔의 변증법으로부터 구분짓는 것에

집중한다. 맑스의 방법론은 헤겔의 방법론과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에 레닌의 초점이 있다. 맑스에게서 헤겔적 방법론은 껍데기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약 20여 년 뒤인 1914~5년에 레닌은 헤겔로 다시 돌아와 『논리학』에 대한 노트를 작성한다. 이 작업에서 레닌은 마치 옛날을 잊은 것처럼 헤겔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그것은 "헤겔의 『논리학』전체를 철저히 연구하지 못하면 맑스의 『자본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자본론』1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제 헤겔은 맑스와의 대립 속에서가 아니라 맑스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제시된다. 알뛰세르는 바로 이 간극 속에서 사유하면서 일견 대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두 태도 사이에 아무런 모순도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근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 세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레닌은 이미 프롤레타리아 계급관점에서 헤겔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읽기의 방법은 철학의 새로운 실천에 속하는 바 그것은 '전면적인 껍질 벗기기', 합리적인 핵심을 발견하고 정제하는 것. 철학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의 당파적 방법은 관념론의 유물론으로의 전도, 버릴 것을 버리고 껍질을 벗겨내어 알맹이를 챙기는 방법으로서의 전도의 방법이다. 전도의 방법 속에서 헤겔은 맑스와의 대립이라는 1894년의 위치에서 벗어나 맑스를 위한 철학자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둘째 레닌은 헤겔의 칸트 비판을 지지하는데, 그 비판은 주관적 관념론을 객관적 관념론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하지만, 레닌은 헤겔의 객관적 관념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학적 유물론과 과학적 객관성이라는 관점에서 껍질을 벗겨내어 그 알맹이만을 취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레닌이 헤겔의 절대이념을 유물론적 역사관의 입장에서 주체 없는 과정에 대한 서술로 읽어낸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변증법을 거부했던 꼬제브나 루카치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시 역사를 하나의 자연적 과정으로, 주체 없는 과정으로 읽으려는 시도이다. 알뛰세르의 말을 들어보자.

> 헤겔 자신이 논리의 시작에 의해 존재=무, 논리의 자리에 의해 기원으로서 거부된 기원, 주체로서 거부된 주체를 세계로 이끌어 들였듯이, 레닌은 모든 기원과 모든 주체를 없애버리고 현실에서나 과학적 지식에서나 절대적인 것은 주체 없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세계 속에서 얻는다. 이런 명제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 다시 말해, 끈질기게 표면, 아니 그 보다는 껍질과 맞닿아 있을 때 유물변증법에 대한, 운동의 절대성에 대한, 그리고 방법의 실체라는 절대적 과정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개념, 정확히 말해, 주체 없는 과정이라는 개념의 기초적이며 과학적인 유효성에 관한 개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얄팍한 껍질을 벗겨내기만 하면 된다.(『레닌과 철학』, 백의, 1994, 131~2쪽)

과정에의 주목은 중요하다. 그것은 기원이나 주체를 지워버릴 정도로 강렬하게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철학은 이 절대적인 역사적 과정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을 재현/상연하는 이론적 계급투쟁이다. 이 과정에는 기원도 없고 주체도 없다. 그렇다면 투쟁하는 계급들, 투쟁하는 철학적 틀들(관념론과 유물론)은 어디에서, 왜 발생하는가? 아니 그렇다면 프롤레타리아란 무엇인가? 프롤레타리아적 계급입장의 선택은 또 무엇인가? 알뛰세르는 「레닌과 철학」과 「헤겔 이전의 레닌」끝을 대중에 대한 강조로 맺는다.

> 이러한 철학의 새로운 실천은 철학을 변혁할 수 있다. 게다가 자기 나름대로 세계의 변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지 도와 줄 수 있을 뿐인데, 왜냐하면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이론가도 과학자도 또는 철학자도 아니고 “인간들”도 아니며 “대중들”, 곧 동일한 계급투쟁 속에서 동맹을 맺은 계급들이기 때문이다.(『레닌과 러시아혁명』, 326쪽)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잇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적절한 기간이든 장기간이든 대중 속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철학자가 아니라 대중들이기 때문이다.(『레닌과 철학』, 133쪽)

저 절대적 과정 속에서 대중들이, 프롤레타리아트가 형성된다면, 그래서 이들이 역사를 만드는 주체로 등장한다면 기원적 주체는 없다하더라도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주체성들이 저 절대적 과정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알뛰세르의 철학 탐구가 사회적 함축을 띠고 나타나는 곳은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에서이다. 이데올로기야말로 이론에서의 계급투쟁이 수행되는 장소이다. 그가 보기에 오늘날 교회라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대체한 것은 학교라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이다. 알뛰세르가 생각하는 맑스-레닌주의 철학은 이제 학교라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내부에서 유물론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을 수행하는 계급투쟁의 형식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신문, 방송과 같은 미디어들이 학교를 대체한다. 투쟁은 지적 형식들, 이론적 형식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감각적 감성적 형식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철학에 어떤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인가? 대중, 철학, 과학, 정치, 문화 등의 새로운 관계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다르게 제기된다.

IV. 알뛰세르의 진화

안또니오 네그리가 쓴 '후기 알뛰세 사상의 진화에 관한 단상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네그리는 알뛰세가 "무엇인가가 우지끈 부러지는" 1970년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철학적 도약을 이룬다고 본다. 그의 도약의 핵심은 유물론 개념 속에 우발성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유물론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는 마키아벨리의 고독 속으로 돌아감으로써, 즉 자신의 조건들의 완전한 부재 속에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기를 선택한다. 사회주의가 끝났다면 변증법적 유물론은 그 존재조건을 잃는다. 알뛰세르는 비목적론적이고 우발적인 유물론을 구성하는 도정에 들어선다.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의 알뛰세는 다시 한 번 마키아벨리를 읽음으로써 생산관계의 사유로부터 역능의 사유로, 생산력의 사유로 나아간다. 구조의 철학자, 주체 없는 과정의 철학자로부터 역능의 철학자로의 변신이라고 해도 좋을 행진이다. 그것은 사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여우되기를 사유하는 것이다. 그것은 삶의 새로운 생산을 위해 실천하는 자, 즉 코뮤니스트로서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그는 실재의 반영이라는 전통적 인식론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며 사유를 신체로부터 출발시키기 시작한다. 이것이 연속성을 압도하는 알뛰세르의 혁신이다.

이러한 사유 속에서 발견된 것은 역설적으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계이다. 알뛰세르는 이데올로기가 국가기구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삶의 다양성을 하나의 중심으로 환원하는 국가권력이 실제로는 공허한 것이라는 것. 네그리적 언어로 말하면 그것은 자본에 대한 탈근대적인 실질적 포섭이 실제로는 이데올로기적 공허의 지배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과 다중>>에서 공허의 지배는 추상화라는 말로도 표현된다) 요컨대 탈근대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의 전체주의적 작동의 연속적 팽창과 점증적으로 강렬해지는 연접(contiguity)이다. 알뛰세르는 여기에서 경제와 정치에서 이데올로기로 향하는 계급투쟁의

변동을 포착한 것이 아닐까? 물질적 생산에서 비물질적 생산으로의 이행이 알뛰세르에 의해 파악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떨까?

이 공허로서의 지배의 총체성(즉 중심)에 맞서는 것은 어떤 힘인가? 그것은 주변이 아니라 가장자리이다! 이것은 국가도 정당도 아닌 다중 속에 있는 힘이다. 랑시에르의 '아무개'가 뒤늦게야 알뛰세르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해야 할까? 물론 알뛰세르는 사회적 노동이 비물질적이고 협력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천착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단지 우리는 여기에서 이론적 실천, 이론에서의 계급투쟁 등에서 이미 암시되고 실험되었던 바의 존재론적 인식틀로의 전면적 이행이 발견된다고는 말할 수 있다. 서서히 주체성에 대한 강조로 초점이 이동한다. 유물론은 벌거벗는다. 벌거벗은 유물론은 첫째 구조가 아닌 현재를, 둘째 업적이 아닌 업으로서의 역사를, 셋째 목적이나 필연성 없는 우발성을 자신의 대상으로 삼는다. 필연이 지배하는 변증법 대신 주사위 던지기가 고려되기 시작하는 것이다.